

# <구령이와 피많은 신부>의 構造와 意味

박 중 성

## 1. 서론

설화는 여느 구비문학 갈래와 마찬가지로 구비전승의 적층문학이고 변이의 문학이다. 적층이란 말에는 그 설화를 향유한 민중집단의 다양하고도 오랜 체험, 그리고 철학이 누적되어 존재한다는 뜻이 들어 있고 변이의 문학이란 말에는 이러한 적층의 한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어 파생된 각편이 존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기본적인 구비문학의 성격을 인식하고 나면, 우리는 설화 text 분석과 의미해석이 기록문학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적층과 변이라는 구비설화 text의 특성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론이 등장하고 민담의 신화적 성격의 탐색이나 혹은 신화의 민담화 과정의 탐색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sup>1)</sup> 발표자는, 설화가 통시적인 적층의 문학이며 동시에 공시적으로 폭넓게 전승되는 공시적 문학이라는 기본전제 아래,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설화를 통시적·계기적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의미의 변화를 통시적 시각으로 고찰한 바 있다.<sup>2)</sup> 이 논문에서

1) 서대석, 구령당당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3, 1986.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87.

김대숙, 여인발복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8. 등이 대표적 예가 된다.

필자가 고찰하고 논증한 결과들은, 한편으로 수다한 부분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레비 스트로스의 인식론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부분들을 통해 하나의 체계를 성립시킨다는 말은, 주대상으로 삼은 설화 text의 위치와 그에 따른 의미망이 결코 주대상으로 삼은 text만으로는 완전하게 탐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적층과 변이의 기본 성격을 전제로 한다면, 주대상으로 삼은 text는 다른 인접 유형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위치지워지고 그에 따라 의미가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접 유형과의 대비를 통한 설화의 자리매김과 의미해석은 곧 논자의 사고체계 내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조작될 수 없으며, 다양한 각편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실상과 인접 유형에서 보여주는 상관적 의미를 통해 탐색되고 논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관점에서 본고는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를 주대상으로 삼아 이 설화에 나타난 의미해석을 작품의 분석을 통해 시도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고는, 필자의 기왕의 논문<sup>3)</sup>이 갖는 단선적인 흐름의 한계에 대해 체계의 量感을 부여하는 보완적 의미도 갖는다.

## 2. 자료개관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는 독립적으로 전승되는 설화유형이면서 <犬猫爭珠>설화의 전반부에 구슬 획득과정에 대한 설명적 삽화(Episode)로서 결구되어 있기도 한 설화이다. <견묘쟁주>는 크게 (A) 등장인물이 구슬을 얻게 되는 과정 (B) 얻은 구슬을 상실하는 과정 (C) 상실한 구슬을 되찾는 과정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각편에 따라서 (A)가 없는 부분도 있고, (A)에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가 아닌 <放經得寶>, 즉 목숨을 구해 준 용왕 아들로부터 보은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신묘한 구슬이라는 이야기가 결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사정을 보아 <견묘쟁주>는 (B)·(C)가 중심이 되면서 개와 고양이의 사이가 왜 나쁜가에 대한 동물 유래담으로서의 성격에 본래적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슬 상실

2) 拙稿,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 서울대 석사논문, 1991.

3) 출고, 위의 논문.

과정에 대한 인과적 장치로서 구슬 획득과정이 폭넓게 결구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신묘한 구슬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느 것이나 결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신묘한 기능의 구슬은 여의주나 야광주로 인식되기에 여기에 관련해서 용왕의 아들이나 구렁이가 등장하는 설화유형이 결구되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대상자료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전승되는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 뿐만 아니라 <견묘쟁주>의 전반부에 결구된 것까지 포괄하고자 한다. 물론 독립유형으로 전승되는 <견묘쟁주> 설화에서 논자의 필요에 따라 (A)부분만을 취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으나 <견묘쟁주>가 갖는 구성방식의 특이함, 즉 구슬 획득과정에 대한 설명적 삽화라면 자연스럽게 결구될 수 있는 구성상의 특성으로 인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더욱이 독립적으로 전승되는 것과 <견묘쟁주>에 결구된 것 사이에 설화내용이나 구성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각 편의 변이양상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sup>4)</sup>.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는 다른 설화유형에 비해 변이의 폭이 적은 편이다. 특히 구렁이의 복수시도가 원한 제공자의 아들이 장가가 첫날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어느 각편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각편의 미세한 편차를 아우르면서 이 설화의 서사단락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a) 어떤 남자가 구렁이에게 잡아 먹히기 직전의 평을 가로채서 아내에게 먹였다.  
-(b) 어떤 여자가 구렁이에게 잡아 먹히기 직전의 평을 가로채서 먹였다.
2. 평을 먹은 후 태기가 있더니 곧 애를 낳았다.
3. 아이가 커서 장가를 가게 되었다.
4. 장가가는 날, 구렁이가 나타나 신랑을 잡아 먹으려 했다.

4) ‘임’이라고 한것은 임석재, 한국 구전설화 1-12, 평민사, 1989-1993이며, ‘대계’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1989를 말한다.비고란의 숫자는 자료가 시작되는 페이지를 뜻한다.

자료 소개	제목명	원한 내용	원한 제공자	구령이 의 보복 대상	구령이의 제공물	구령이의 제치자	구령이 의 행방	비고
임 2	신묘한 연적	구령이 母를 인 간이 잡아먹음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연적	아내	죽음	158
임 2	신묘한 보배	평 가로채기	신랑의 母	신랑	네모난 물건	신부	죽음	159
임 2	신묘한 보배	평 가로채기	신랑의 父	신랑	야광주	신부	죽음	160
임 2	여덟 모의 보옥	0	0	새 서방	여덟 모난 보옥	신부	죽음	165
임 7	구령이가 준 구 술	평 가로채기	신랑의 母	신랑	구령이 여섯 난 구술	신부	죽음	217
임 7	구령이에서 얻은 靈珠	평 가로채기	신랑의 母	신랑	구술 세 개	신부	죽음	219
임 7	구령이에서 얻은 영주와 고양이와 개	0	0	신랑	구술 두 개	신부	죽음	222
임10	신부가 구령이에 게서 뺏은 보물	평 가로채기	신랑의 母	신랑	네모난 구술	신부	죽음	174
임12	개와 고양이의 보은	0	0	신랑	모난 구술	신부	죽음	68
충남 민담	구령이와 연적	평 가로채기	신랑		구령이 물린 연 적	신부	죽음	44
대계 2-2	개와 고양이가 구술찾은 이야기	평 가로채기	신랑의 父	신랑	같은 구술	신부	죽음	591
대계 2-6	구령이가 준 연 적	평 가로채기	신랑의 母	신랑	네모난 연적	신부	죽음	600
대계 2-7	개와 고양이의 구술다름	평 가로채기	신랑의 父	신랑	야광주	신부	죽음	243
대계 2-7	개와 고양이의 구술다름	0	0	이정송 의 子	야광주	이정송 의 子	죽음	602
대계 4-3	구령이의 보물	평 가로채기	신랑의 父	신랑	세모난 돌맹이	신부	죽음	486
대계 4-6	구령이 물리친 신부	평 가로채기	신랑의 父	신랑	목타	신부	죽음	549
대계 5-7	구령이의 신기한 방망이	평 가로채기	하인(아씨)	신랑 (아씨의 子)	방망이	신부	죽음	187
대계 7-1	평과 이시미	평 가로채기	신랑의 母	신랑	구술	신랑	죽음	341
대계 8-3	들짱 신랑과 구 령이	평 가로채기	신랑의 母	신랑	네모난 첫덩이	신부	죽음	594
대계 8-5	평터이와 구령이	평 가로채기	신랑의 母	신랑	구술	신부	죽음	614

이상의 자료를 <구령이와 떠났은 신부> A형이라 칭한다.

자료 소개	제목명	원한 내용	원한 제공자	구렁이의 보복 대상	구렁이의 제공물	구렁이의 제치자	구렁이의 행방	비고
입 7	구렁이에서 얻은 영주	승천 중인 구렁이를 방해	신랑	신랑	구슬 두 개	신부	죽음	221
대계 5-1	구렁이와 피많은 신부	불에 타서 승천하려는 구렁이에게 물을 끼얹음	신랑	신랑	세모난 물건	신부	죽음	451
대계 6-7	피많은 아내	불에 타서 승천하려는 구렁이에게 물을 끼얹음	신랑	신랑	구멍이 셋 있는 네모난 물건	신부	죽음	782
대계 7-3	구렁이가 준 통소와 피많은 신부	불에 타서 승천하려는 구렁이에게 물을 끼얹음	신랑	신랑	통소	신부	죽음	79
이상의 자료를 <구렁이와 피많은 신부> B형이라 칭한다.								

5. 신랑이 결혼식이나 치르고 잡아 먹히겠다고 간청하자 구렁이가 허락했다.
6. 사정을 알게 된 신부가 신랑과 함께 구렁이를 만났다.
7. 신부가 구렁이에게 남편 사후의 생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8. 구렁이가 모가 난 구슬을 뱉어 주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9. 신부가 그 구슬을 이용해 구렁이를 역습하여 제치했다.
10. 구슬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돌아와 잘 살았다.

1·2·3단락이 생략된 채 진행되는 설화가 있는데, 이는 다른 각편을 고려해 볼 때 구연자의 망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야기의 전개상 1·2·3이 있어야만 논리적 관계가 분명해져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한편 구렁이의 먹이인 뱀을 가로챈 인물이 신랑의父나 母가 아니라 신랑 자신으로 설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랑은 뱀을 잡아 먹지 않고 살려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사정은 뒤에 의미분석의 과정에서 상론하기로 하겠다.

### 3. 국면의 전환 양상과 그 의미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는 모두 4개의 국면(Sequ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 1 국면: 꿩과 이시미 - 꿩은 이시미에게 공격당해 먹이로 먹히기 직전에 있다.
- 제 2 국면: 부부와 이시미 -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꿩을 가로챈 후, 여자가 꿩을 먹고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게 된다.
- 제 3 국면: 아들과 이시미 -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들게 되는데, 산고개에서 이시미를 만나 그에게 목숨을 요구받게 된다.
- 제 4 국면: 신부와 이시미 - 결혼식 후 신부가 상황을 알고 남편과 함께 이시미를 찾아가서 대항하여 이시미로부터 모가 난 구슬(구멍이 난 구슬)을 얻어 역습함으로써 이시미를 제치하고 귀가한다.

제 1 국면은 자연공간에서 동물 상호간의 대결양상을 보여준다.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꿩은 이시미의 위력에 굴복하고마는 열세적 존재이다. 따라서 꿩과 이시미의 대립은 상호우위에 입각한 대결이 아니라 일방의 우위에 입각한 것이다. 한편, 모든 각편을 통해 볼 때, 이시미의 대립 행위체는 아직 꿩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시미의 대립 행위체가 날짐승이면서 땅을 기어서 먹이를 찾는 조건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꿩으로 설정된 것이다. 꿩은 멀리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땅바닥을 기면서 먹이를 찾는 새이다. 따라서 기어다니는 이시미가 먹이로 삼기에 꿩은 가장 적당한 새가 되는 것이다. 구렁이와 꿩의 상관성은 <종소리> 설화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바이다.

제 2 국면에서는 자연공간에서 벌어지는 동물 상호간의 대결에 인간이 개입하여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꿩에 대해 우위에 있던 이시미는 그 우위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인간에 의해 좌절된다.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동물 상호간의 대결은 인간과 동물과의 대결로 그 양상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꿩을 가로챈 인간과 이시미와의 심각한 대결은 나타나질 않는다. 자신의 먹이인 꿩을 가로채서 먹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보복행위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 점은, 꿩이 단순하게 생존을 위한 먹이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꿩을 가로챈 부부에게 자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노인부부로 나오거나 아니면 자식이 없는 부부로 설정되어 있는데, 꿩을 먹고 나서 곧바로 임신을 했다

는 사실은 꿩에 의해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강한 인과성을 보장해 준다고 하겠다. 신랑의 이름이 ‘들꿩신랑’ 혹은 ‘꿩덕이’로 나타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한편 공간의 이동에서 본다면 꿩을 취한 자연공간에서 꿩을 먹고 아이를 출산한 집 즉, 文化공간으로 이동이 나타났다.

제 3 국면에서는 꿩 덕분에 태어난 아이가 文化공간에서 성장하다가 혼례를 치르는 단계까지 이른다. 아이가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부집으로 가는 도중에, 꿩을 빼앗긴 그 이시미와 조우하게 되는데 이곳은 바로 자연공간이다. 부부가 꿩을 가로채서 먹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서당에 다니면서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이시미가 복수를 미루어 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시미가 복수의 대상을 태어난 아이로 설정했다든지, 또 아이가 혼례를 치를 때까지 기다렸든지 하는 것은, 이시미가 놓친 꿩이 단순한 먹이로서의 꿩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으로 이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가) “나가 아직 어리니 내 밥을 가지고, 나가 태어났어. 하니 나가 십오 시만 되면 내가 널 먹겠다. 하니께 그 동안만 기다리라. 키 커라.” (대계 8-5, p. 615)

(나) “그 달부뎨 태기가 있지 않느냐? 그 꿩을, 십 년 먹은 꿩을, 태기가 있지 않느냐?”……“그 구렁이가 그 꿩을 잡아 먹어야 칠 년 먹은 구렁이가 그걸 잡아 먹고 용이 되어 올라간다. (조사자: 예 …) 그래서랑 그렇다.” (대계 2-7, p. 245) (상점: 인용자)

인용문 (가)는 이시미가 꿩 덕분에 태어난 아이에게 한 말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15년을 기다려 잡아먹겠다고 한 말이고, (나)는 꿩의 나이가 10년이나 되고, 그 꿩을 먹으려던 이시미가 용이 되려고 천년 세월을 기다린 존재임을 나타낸 말이다. 결국 이시미가 잡아 먹으려던 그 꿩은 십년 된 것이니, 그 꿩 덕분에 태어난 아이 역시 그 만큼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십년 된 꿩을 먹어야 승천할 수 있으므로 십여년이 지난 뒤 아이를 잡아 먹어야 승천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시미가 꿩을 가로챈 부부에게 바로 보복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시미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보다는 하늘로의 승천이 중

요한 목표였고, 따라서 이시미가 자신의 몸 속에서 보물을 내어 주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담보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신랑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시미가 승천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꿩 즉, 날짐승이 설정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간의 점유라는 차원에서 논의할 성질인데, 땅을 기어다니는 이시미에게 하늘을 나는 기능의 획득은 곧 절대적 신격으로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기어다니는 이시미에 날아다니는 꿩이 결합됨으로써 龍이라는 복합적 신격의 속성을 온전히 갖추게 되고, 이는 보다 신성한 존재로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天空을 점유하려는 상승의지는 이처럼 날아다니는 짐승의 기능을 덧붙임으로서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형상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시미가 꿩에 대해 그렇게 집착하고 또한 꿩덕에 태어난 아이를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이 생존을 위한 차원을 벗어나 승천에 그 목적이 있음은 다음의 자료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으나 이시미가 원한을 갖게 되는 동기에서 편차를 보이는 설화 각편으로 앞에서 B형이라고 칭한 자료이다. 편차를 보이는 부분만을 서사 단락으로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장가가기로 되어 있는 한 사람 (후계를 위해 신부집으로 가던 신랑)이 점쟁이(중)로부터 “고목나무 위에 구렁이(사람)가 불에 타고 있어도 못 본 체 지나가라”는 말을 듣는다.
2. 장가를 가다가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서 불에 탄 채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불을 꺼준다.
3. 고목나무에서 구렁이 (이시미)가 내려와서 “승천을 방해했으니 대신 잡아 먹어야겠다 (잡아 먹어야 승천한다).”고 하면서 덤벼든다.
4. 그 사람이 장가를 가고 나서 잡아 먹으라고 간청하자 구렁이가 이를 허락한다.  
(以下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와 同一)

고목나무 위에서 승천하기 위해 구렁이가 불에 태워지고 있을 때, 지나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금기를 깨뜨리면서 불을 꺼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積善의 결과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초래했다. 그 이유가 구렁이의 승천을 방해한 데 있음으로 해서 ‘적선의 행위’는 무시되고 만다. 즉 일상적인 인간사의 논리로는 神的인 세계의 섭리를 재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다. 여기서 우리는 ‘구렁이의 승천’이라는 의미축에 두 가지 설화로 형상화되어 나타남을 알게 된다. 이시미의 집요한 복수의 지와 그에 대응하는 신부의 행위로 문면에 드러난 이 설화내용이 사실은 이시미의 승천욕망과 좌절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는 관계로, 전자의 자료에서처럼 함축적으로 형상화된 경우와 후자의 경우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형상화된 경우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시미가 뱀을 잡아먹으려다 실패한 사정은 불에 태워져 승천하려는 이시미의 행위와 좌절의 또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다. ‘승천의 욕망과 좌절’이라는 의미축에서 파생되어 존재하는 두 유형을 통해 설화의 텍스트연구의 방향, 즉 한 설화유형의 의미해석은 인접유형간의 대비연구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으로 우리는 구렁이의 승천 방식이 ‘불에 태워짐’으로 나타난 사정에 대해 좀더 추찰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구렁이는 물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기에 水性的 존재로 인식되었다.

뱀 껍데기를 뭐하냐고 갔다 아궁지에 놓고 불을 살렸대요. 그래서 인저 선비가 들어오다가시리 그냥 도망을 갔더래요. (대제 1-9. 용인군, 이동면, p. 202)

위 인용은 <구렁덩덩신선비>에서 신선비가 구렁이에서 인간으로 변한 후, 신부에게 준 허물이 두 언니에게 불태워지는 부분이다. 신선비가 구렁이 허물을 잘 보관하라고 부탁한 것이 수신신앙의 지속을 의미한다면<sup>5)</sup> 이 단계에서 뱀은 수성적 차원의 존재로 인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火性과는 상극적 위치에 놓이며 불에 의해 열세에 놓인다.

그러나 뱀이 수성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보다 복합적인 속성을 지닌 신격으로 인식되면서 불과 물을 함께 아우르는 존재로 인식되는데, 이런 사정이 구렁이의 승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가) 예쁜 각시가 정자나무에 올라 앉아 있더라. 근데 밑에서 불이 화르르로 탄개, ... 두루매기를 요렇게 (웃 터는 동작) 인자 적셔서 물을 탁탁 자고 (끄고) 난개로 구렁이가 요만 (두 손을 합친 크기의 동작)한 놈이 내려오더라. 구렁이가 돼 갖고는 “너를 죽인다. 따라간다.....” (대제

5) 서대석,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3, 1986, p. 198.

5-1, 남원군 금지면, pp. 450-451)

(나) 노곤을 비벼서 끄시고 나가서 (구렁이를 - 인용자) 기양 꼬실라 버렸어. 밤에 꿈을 꾸니까 백발노인이 ...“나가 나를 등공하게 만들었으니 ...”(대계 1-4 승주군 주암면, pp. 408-409)

(가)와 (나)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가)는 구렁이의 승천이 좌절당한 사정을 (나)는 구렁이의 승천이 성공한 사정을 보여주는데, 모두 불에 의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물은 불에 의해 수증기로 변하게 되고 수증기는 위로 향해 올라가는 형태로 전환했는데, 이는 A형에서 이시미가 날아다니는 꿩을 취함으로써 飛上할 수 있다는 관념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가)는 구렁이가 나무 위라는 공간에서, (나)는 사람에 의해 불과 접촉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공간의식의 단면을 적시할 수 있다. 이를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와 상관시켜 고찰해 보면 相同性이 확인된다.

< A 형 >	< B 형 >	< C 형 > <sup>6)</sup>		
a: 꿩 <sup>7)</sup>	불(火)	불	:	天
				↑
b: 사람	나무	사람	:	天地間
				↑
c: 이시미	구렁이(水)	구렁이	:	地

땅을 기어다니는 단계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단계로의 상승은 공간의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도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땅을 기어다니는 구렁이의 공간 상승의지는 순차적이다.

A형에서 이시미가 곧바로 꿩을 잡아 먹으려고 하다가 인간때문에 실패

6) 인용문 (나)를 지칭한다.

7) 하회별신굿놀이의 주지는 현지주민에 의해 사자로 인식되지 않고 꿩털이 많이 꽂힌 새, 혹은 몸은 용 머리는 호랑이 모양을 한 귀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발표자는 주지과장이 용과 용의 싸움굿 형태임을 고찰한 바 있는데 여기서도 꿩털을 꽂고 있어서 사신과 꿩과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줄고, 사신제의와 탈춤의 형성,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하는 것은 땅바닥에서 곧바로 하늘로 상승하려는 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따라서 썩이면서 사람인 신랑을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자신의 죽음을 담보하면서까지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은, 썩의 점유공간인 하늘과 인간의 점유공간인 하늘과 땅 사이를 땅바닥을 점유하는 구렁이가 취함으로써 순차적인 공간의 상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순차적 공간 상승은 B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구렁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불에 태워지는 것이 그것이다. 땅바닥의 구렁이가 그 자라서 불에 태워지는 것은 A형의 구렁이가 썩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에 나무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했다. 나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사이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순차적인 공간상승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 인용은 구렁이의 승천이, 하늘과 땅 사이를 점유하는 인간이나 나무를 이용해야 하는 사정을 말해준다.

“이렇게 불을 쳐질러봐요. 쳐질러 보든 이 지녀 탄 것은 위에도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지렁이 탄 것은 탄 연기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대계 5-4, 군산시, pp. 240-241)

신격의 성립은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신격이란 인간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렁이의 승천이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설화내용은 곧 이 설화를 향유하는 우리민족의 순차적 사고 방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C형도 이런 의미에서 同一하지만, A와 B를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에 의해 태워지는 승천에서는 B를, 그것이 사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A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C형이 A-b 와 B-a가 조합된 설화라면, A-a 와 B-b가 조합된 설화유형도 존재할 것인데 우리는 설화 <종소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순차단락은 다음과 같다.

1. 한 한량이 과거를 보러 집을 떠났다.
2. 그 사람은 나무위의 까치를 잡아먹으려던 구렁이를 죽이고 까치를 구해 주었다.
3. 날이 저물어 인가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잠든 사이에 구렁이가 몸을 감고

- 남편의 복수를 하겠다고 하며 살려거든 종소리를 세 번 들려달라고 했다.
4. 그 때 종소리가 울리고 구렁이는 그 사람의 몸을 풀고 승천했다.
  5. 날이 밝아 종소리 난 곳을 가보니 어제 구해준 까치가 죽어 있었다.
  6. 그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나무위의 까치를 잡아먹고 승천하려는 구렁이의 행위에서 우리는 비어 있던 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된다. 여러 각편들에서 구렁이가 까치를 잡아먹으려는 행위가 무엇인지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암구렁이가 남편의 복수를 한다고 하고는 승천을 하는 사실에서 숫구렁이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순차적인 공간상승을 통한 용으로의 승천행위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설화<종소리> 역시 용으로 승천하여 완전한 신격으로 상승하려는 구렁이의 의지가 인간에 의해 일차적으로 좌절되었다가 날짐승인 까치의 희생으로 인간과 구렁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까치의 희생으로 사신과 인간 모두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사신의 위력이 어느정도 인식되는 시대에 인간희생이 아닌 짐승의 희생으로 인간의 안녕을 도모했던 시기를 설화적 형상화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다음의 자료는 꿩과 불에 의한 구렁이의 승천을 복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말짜인(나중에는) 캐우니(태우니) (구렁이가: 인용자) 장꿩(장끼)이 되연 푸드득 놀드라 후여” (대계 9-3, 남계주군 안덕면, p. 738)

以上에서 제 1 국면에서 제 3 국면까지에 대한 의미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3 국면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시미가 상대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제 4 국면에서 와서 이시미와 대결하는 존재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신랑과 결연한 신부로 바뀐다. 3 국면까지가 제의적·신화적 국면이라면, 4 국면은 ‘결혼’이라는 문화적 관습을 매개로 전개되고 있다.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 신랑과 신부는 공동운명체로 결합된다. 신랑의 생존위협은 곧 신부의 생존위협이므로 이시미의 상대로서 신랑을 대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국면에 이르면 이전까지의 심각한 이시미의 행위

가 신부에 의해 회화화된다.

3 국면까지 이시미가 가졌던 승천좌절에 대한 원한은 4 국면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한다. 이시미는 혼례를 치른 신랑을 잡아 먹음으로써 십수년을 기다려 온 승천에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인데, 혼례를 치른 후 신랑과 한 몸이 된 신부의 등장으로 또 다른 장애를 만난다. 신부는 이시미에게 남편이 죽고 난 뒤 자신에게 닥쳐 올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시미에게서 남편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이시미는 신랑을 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슬을 내어준다. 그 구슬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모두 얻을 수 있는 보배로서 이시미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자기 생명도 제거될 수 있는 보배를 선뜻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시미의 승천욕구가 큼을 의미한다. 강진옥 교수는 “자기 생명도 제거될 수 있는 보배를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빼앗겼던 먹이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이시미의 집착에서 비롯된 어리석음 때문이다.……승천을 좌절당한 원한 때문에 복수의 집착은 대단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시미는 그 네번째 모서리로 복수하려는 지혜를 동원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상태의 동물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sup>8)</sup>고 보았다. 그러나 이시미에게 있어서 신랑을 취하는 궁극적 목적은 신랑을 죽이는데 있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시미가 신랑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성인으로 성장하기 까지 기다릴 하등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은 이시미가 내어놓은 구슬의 성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시미의 구슬은 현실생활에서나 그 값어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원하는 재물을 모두 취할 수 있어서 좋다든지 미운 놈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서 좋다든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내에서의 문제이다. 재물과 수명을 초월하여 완전한 신격으로 승천하려는 이시미에게 구슬의 조화는 別無所用인 셈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구비문학의 유형분석과 의미해석은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종합화와 체계화를 지향해야 한다. 한 유형을 text로 선정하고 이 text만을 통해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무리한 해석을 도출할 우려가 있다. 구비문학은 구비·적층의 문학이고 변이의 문학이다. 설화의 각편

8) 강진옥, 전묘쟁주형 설화의 유형결합양상과 그 의미, 이화논총 52, 1987, p 23.

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기능한다. 본고의 대상인 이들 자료 역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개별적으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들 유형군이 지니는 심층적 의미를 추찰하기 위해서는 표면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유형들을 상호 대비하면서 하나의 의미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시미의 궁극적 목적은 순차적 공간상승을 통한 승천에 있었으며, 그 승천에의 욕망이 강렬한 만큼 이시미의 행위는 무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 4 국면에 이르면 ‘결혼’이라는 통과 의례와 이를 통한 ‘신부의 이시미 대결자로서의 변모’, 그리고 상황의 역전이 일어난다. 결국 이시미에 대한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보겠다. 그러면 ‘결혼’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를 위해 蛇神에게 처녀를 바쳐서 결혼하게 하는 설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다음 세 인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 설화의 ‘결혼’이 지니는 의미를 검토해 보자.

(가) 供饗는 정기적인 축제나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해졌는데, 희생자는 항상 지내자였다. … 메리야(희생자)는 마을로부터 공회장소까지 행렬을 지어 옮겨진다. 거기서 메리야는 聖別되며 … 神과 동일시된 것 처럼 보인다. … 그 사람들이 그에게 바치는 존경은 숭배라고 할 정도이다.<sup>9)</sup>

(나) 참 동네 사람들 여럿이서 인자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가마에 처녀를 태와가주고 지내한테 지내색시로 맞아주기 위해서 가더라. 이기라.<sup>10)</sup>

(다) 당태종은 정병을 이끌고 여기 모여 성을 수백겹으로 포위하고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성 안에는 주몽의 사당이 있고 사당에는 鎖甲鎧子가 있었는데, 妄言에 전일 무당이 “燕이 쳐들어와 포위하여 위급할 때 미녀를 婦神으로 꾸미니 주몽신은 기뻐하여 성을 완전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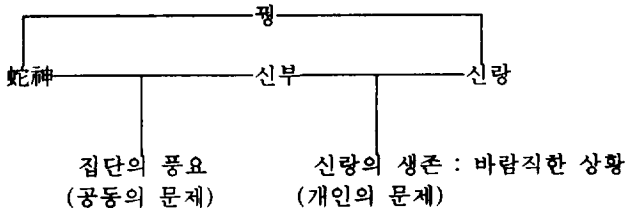
9) 이은봉, *종교형태론*, 형설출판사, 1979, pp. 378-379.

10) 김승찬, *경남지방의 민담*, 제일문화사, 1986, p. 263.

11) 帝引精兵會之 圍其城數百重 鼓噪聲振天地 城有朱蒙祠 祠有鎖甲鎧子 妄言

(가)는 인도 벵갈 주의 콘트족에서 행해진 메리야 제의에 관한 서술이고 (나)는 두꺼비 보은형 설화에 포함되는 '지네창 전설'중에서 지네에게 해마다 처녀를 색시로 바쳐야 마을의 안녕이 보장되므로 처녀를 지네와 혼인시키기 위해 지네 사당으로 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며 (다)는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몽신에게 여자를 신부로 바쳐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전부터, 마을의 안녕을 위해 신에게 배우자를 바치던 습속은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신에게 바치는 인신 공희의 형태가 한편으로 '혼례'로 형식화된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바쳐진 처녀는 마을의 안녕을 지속시켰으므로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집단적 영웅인 셈이다.<sup>12)</sup> 그 처녀를 '혼례'를 통해 신의 배우자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 있다. 마을의 안녕을 보장한 바쳐진 처녀의 행위는 신의 배우자라는 신분 설정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에서 신부는 바로 신의 배우자의 성격변모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신부는 神의 배우자로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보장했고,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에서는 한 남자의 신부로서 한 남자의 생존을 보장했다. 전자는 집단적 문제를 제의와 상관시켜 다루었고, 후자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문제를 일상사와 상관시켜 다루었다. 이런 사정을 편의상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렁이(이시미)의 승천 방식은 설화를 통해 볼 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자를 제물로 받아 여자의 음부에 있는 여의주를 얻어 승천하거나

前燕世天所降 方圍急 飾美女以婦神 巫言 朱蒙悅 城必完, <三國史記> 卷 21, 高句麗本紀 第9 寶藏王條.

12) 拙稿, 앞의 논문에서 이런 사정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잡아 먹는 것으로 형상화되기도 함) 날아다니는 새(꿩)를 잡아 먹고 승천하거나 불에 태워져서 승천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다. 사신과 혼인하여 집단의 풍요를 보장했던 신부의 역할은, 꿩으로써 사신과 상관되는 인간의 신랑과 결혼하여 개인적 고난과 가정의 고난을 해결하는 역할로 바뀌었다. 전자가 보여주던 神婚의 제의적 양상은 인간의 혼례라는 일상사의 양상으로 변모했다. 고난을 해결했다는 면에서 양자의 신부는 모두 영웅적 성격을 지닌다. 전자가 제의적 상황에 놓임으로써 더욱 숭고하고 비장한 반면, 후자는 일상적 상황에 神의 위력이 회화화되어 버림으로써 골제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神중심의 생활방식에서 인간중심의 생활방식으로 변모해 간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신과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다음의 순차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

1. 신부가 사신에게 바쳐져 사신의 신부가 되어 사신을 위했다. (신중심)
2. 사신의 속성 중 飛上의 속성이 신랑에게 전이되었다. (신 → 인간)
3. 신부가 사신의 속성 중 일부가 전이된 신랑을 위했다. (인간중심화)
4. 飛上의 기능을 상실한 사신은 동물적 차원으로 하락하여 체치되었다. (신 → 동물)

蛇神에게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집단의 안녕을 보장받으려던 행위 자체가 문제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sup>13)</sup> 신과의 화합, 집단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한 개인의 희생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던 시기에는 사신과 인간이 동일시됨으로써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비극적이지 않았다.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신의 죽음이나 인간의 죽음은 동질적이며, 그 자체로 윤리중립적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 누구에 의해서 왜 비롯되었는가 문제시 될 때, 죽음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가치가 개입한다. 그 가치가 인간 윤리의 차원일 때,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사신과의 화합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 인간에게 심각성을 야기시키게 된다. 신에게 바쳐지는 자의 죽음이 비극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는 것은 신과 인간의 화합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하고,

13) 이런 사정은 설화자료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줄고, 전계논문에서 다루었다.



인간 행위의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뜻한다. 죽음이 비극적일 수 있다는 것은 삶이 인간 이상의 중심점에 놓일 때만 명확하게 드러난다.

비극이란 실제 세계 속에서 이상적인 것의 몰락이자, 실재하는 것 속에서 이상적인 것의 패배라 할 수 있다. 신과의 화합을 도모했을 때에는 한 개인의 희생으로 집단적 풍요가 보장되고 신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었으므로, 한 개인의 죽음은 비극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을 담보하지 않고 지속적인 풍요와 번영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등장했을 때, 한 인간의 죽음은 비극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두꺼비 보은>형에서 이미 확인하였던 바이다. 한 인간의 죽음을 던고 선 다수의 행복이 결코 진정한 의미를 떨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식은 신의 위력에 善·惡이 문체되지 않는 시기 즉, 인간 이상의 중심에 신이 자리잡은 시기에서 인간의 삶이 자리잡는 시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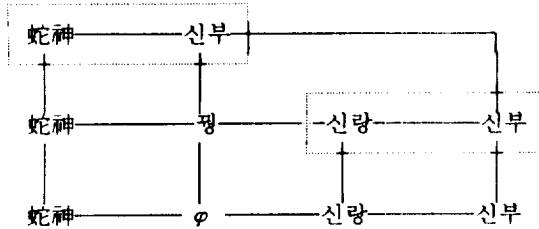
이 시기로의 전환에 두가지 인간의 대응방식이 존재한다. 첫째는 사신과 인간의 심각한 대결로의 전환이고 둘째는 인간제물을 대신하여 짐승제물을 바쳐서 여전히 神과의 화합을 도모하다가 이후에 신격을 인정하지 않고 대결하는 방식이다. 발표자는 기왕에 전자의 경우를 고찰한 바 있거니와 설화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는 후자의 경우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가 된다.<sup>15)</sup> 여기서 우리는 제물의 성격 변화와 더불어 제의적 神婚에 대

14) 拙稿, 앞의 논문, p. 83.

15) 인도의 다음 자료는 인신공회가 동물공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인용할 만 하다.

처음에 신들은 한 인간을 제물로 처형했는데 그 인간이 처형될 때 그 속에 있던 제의의 효력은 그에게서 나와 말(馬)속으로 들어갔다. 신들은 말을 희생시켰다. 말이 희생당할 때 그 속에 있던 제의의 효력은 그것에서 나와 암소 속으로 들어갔다. 이같이 해서 이 암소가 처형될 때 그 속에 있던 제의의 효력은 암양 속으로 들어갔다. 또 그 암양을 희생시키자 그 속에 있던 제의의 효력은 숫양 속으로 들어갔다. 신들은 그 효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으며 결국 그것을 찾아냈다. 그것은 쌀과 보리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땅을 파서 그것들을 얻고 있다.(Gatapath-Brahmana, 1, 2, 3, 6-7, in Sylvain Levi, op. cit., pp.1 36-138. 르네 지라르, 폭력과

한 관념이 사라지는 대신 인간의 통과제의로서 혼례가 중요시되는 사정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에서는 제의적 신혼과 단절된 인간의 혼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꿩을 매개로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간적 모습을 보인다 하겠다.



사신과 화합하면서 집단의 안녕을 보장했던 신부는 사신과 대결하면서 개인과 가정의 안녕을 보장하는 기능의 전환을 보여주고, 사신은 인신제물에서 꿩제물로, 다시 아무런 제물도 받지 못하는 상태 즉, 단순한 동물차원으로 전락의 과정을 보여주며, 신랑은 사신에게 바쳐질 제물에서 인간으로 化하였으나 꿩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신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사신에게 절대적 열세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신랑은 인간의 삶에 神이 자리잡고 있던 시기의 인간형이, 인간 중심의 삶의 양태로 변모해가는 과도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아주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여겨왔던 <구렁이와 피 많은 신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복잡하고 심층적인 것임을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살폈다. 구비문학 text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많은 세월을 통해 민중들의 진솔한 생활철학이 적층되어 이루어진 설화는, 다른 주변 설화와의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형성·변이되는 문학양식임을 재차 인식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 1 국면에서 제 4 국면까지의 내용을 분석하고 함의하는 바를 고찰했는데 다음에는 이 설화의 공간배경과 혼인의 의미, 그리고 구출

성스러움(김진식, 박무호 역), 민음사, 1993, pp. 462-463에서 재인용).

자의 성격에 따른 설화의 두 양상에 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 제 1 국면: 썩과 이시미 (산속, 논 : 자연공간)
- 제 2 국면: 이시미와 부부 (산속 → 집 : 자연 → 인공)
- 제 3 국면: 이시미와 신랑 (산속 : 자연)
- 제 4 국면: 이시미와 신부 (집 → 산고개 : 인공 → 자연)

공간배경의 흐름을 좇아보면 ‘자연공간 → 文化공간 → 자연공간 → 文化공간 → 자연공간’으로 나타난다. 제 2 국면에서 잠시 文化공간의 개입이 있으나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제 3 국면까지 자연공간 속에서 이시미의 우위가 지속되는데, 이러한 우위는 자연공간 속에서 인간이 지니는 본래적 열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제 4 국면에 이르러 신랑은 ‘집’이라는 文化공간에서 ‘혼례’라는 文化적 관습을 거쳐 완전한 성인이 된다. 이제 신랑은 文化의 세례를 받은 완전한 인간 존재로서 썩과 이시미의 관계에서 근원한 근본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文化의 세례를 통해 신랑이 이시미에게 잡혀먹지 않게 되는 것은 ‘혼례’를 통해 자신에게 결합된 신부의 역량 때문이다.<sup>16)</sup>

신부는 결혼이라는 文化적 통과의례로써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신랑의 생존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신랑에게 사신의 속성 중 하나가 전이됨으로써 신랑과 신부의 결혼은 신과 인간의 神婚과 인간과 인간의 혼인의 중간적 위치를 보여준다고도 하겠다. 혼인이 갖는 文化적 의미는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神婚의 종교적 의미를 점차 인간중심적인 것으로 덧입히면서 그 文化적 깊이를 더해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설화의 모든 각편에서 신부가 기어코 신랑과 혼례를 치르고 초야를 보내는 것은, 사신의 위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신에 복속된 인간형에서 文化적 공간에서 文化적 세례를 받은 이후의 새로운 인간형으로의 전환을 함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부’는 그 매개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우리는 구출자의 성격에 관해 검토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구

16) 자연공간과 文化공간의 의미에 관해서는 강진욱, 앞의 논문이 좋은 참고가 된다.

령이와 피많은 신부>에서는 구출자가 여성이고 그 과정이 '혼인-구출'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사정은 남성 구출자가 등장하는 여타의 설화와 대비하면 구출의 과정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구출자가 등장하는 <지하국대적체치담>이나 <지네창전설>류의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의 여성구출 이후에 결합의 과정이 이들 유형의 특징이다. 전자를 '결합-구출'형으로 후자를 '구출-결합'형으로 잠정적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편의상 이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 본다.

	(가)	(나)
구 출 자	여성	남성
구출과정	결합-구출 <sup>17)</sup>	구출-결합

이런 사정은 구출자가 여성이나 남성이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구출자가 여성인 경우에 '결합'이 우선한다는 상황설정은 온달이나 무왕이야기, 그리고 <신유복전>등에서 개연적으로 파악되는데, 죽음에서의 구출이

17) 아일랜드 민담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例로 들만하다.

'옛날 어느 나라에 리니란 왕자가 있어 기운이 매우 썩다. 대궐 근처에 시그니란 가난한 소녀가 살았다. 어느날 왕자가 숲속에서 행방불명이 되어 왕은 근심하던 나머지 전국에 방을 내렸다. 소문을 들은 시그니는 정치없이 왕자를 찾아 떠났는데 하루는 커다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굴 속에 있는 금침대에 왕자가 누워 자고 있었다. 왕자를 깨어와 백조를 불러 노래를 시키니 왕자가 잠을 깨었다. 비밀을 알아낸 시그니는 괴물이 나간 틈을 타 왕자를 깨워 둘이 잤다. 왕자는 괴물 여자들이 들어오자 그들이 낮에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면 소원대로 결혼하겠다고 하였다니 괴물 여인은 "숲에서 생명의 알을 가지고 공치기를 하는데 생명의 알은 우리의 목숨을 좌우한다"고 대답하였다. 아울러 침대가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달린다는 것도 알아낸 왕자는 다음날 시그니와 숲으로 가 생명의 알을 깨쳐버리고 그들에게서 벗어나 대궐에 돌아왔다. 왕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왕자는 시그니를 왕비로 맞았다.'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p. 220에서 재인용(밑줄:인용자). 여기서도 여성의 구출행위 이전에 남성과의 결합이 우선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무지몽매에서 구출은 모두 결합이후에 일어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구렁이와 피많은 신부>에서는 남성의 역할이 여전히 제거된 반면 온달, 무왕, 신유복 등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도움으로 영웅화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양상을 필자는 여성영웅에서 남성영웅으로의 전환과정이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여성의 능력이 對남성 우위를 점하는 차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지만, 남성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구렁이와 피많은 신부>에서는 원초적인 여성영웅의 모습이 간직되고 온달, 무왕 이야기는 여기에 남성의 영웅화가 덧입혀지고 또 <신유복전>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신유복의 영웅성이 부각되는 일련의 편차가 감지된다.

(나)의 양상이 설화에서 소설로 전환되는 과정은 기왕에 살핀 바 있거니와<sup>18)</sup> (가)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신유복전>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만하다. 기왕에 설화에서 소설로 전환되는 과정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된 바 있는데 본고의 관점에서도 역시 이러한 과정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sup>19)</sup>

#### 4. 맺음말

지금까지 <구렁이와 피많은 신부>설화를 통해 구조적 특징과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본고의 기본관점은 기왕의 설화연구에서 보여주었던 개별성을 극복하고 구조와 의미의 종합화와 체계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개별 작품론이면서 개별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구비설화의 장르적 특성을 본고에서 확인하려고 하였다. 필자는 이제 설화연구의 방법론적 전환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보는 바, 본고 역시 이러한 전제하에서 쓰여진 것임을 밝혀둔다.

18) 줄고, 앞의 논문.

19) 여기에 관해서는 따로 논문을 준비하여 상세하게 따져야 하리라고 본다. 필자의 과제로 남겨둔다. (가)와 (나)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서로 교차하여 또 다른 형태를 생산해 내기도 했을 것이다.